

이코노 & 비즈피플

김동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권지회장

# “지자체와 협력 도시재생에 주력”

### 부동산 개발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정책개선 건의 ... 경쟁력강화 기여하겠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지만 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 도시재생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호남권지회 지회장으로 취임한 김동기 하이랜드 대표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적인 촉매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권지회는 2005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설립된지 10년만에 결성되는 산하협회로 광주와 전남, 전북·제주를 포괄하는 지역 부동산 산업을 대표하는 리더협회가 됐다.

김 지회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지회인 만큼 기대와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글로벌한 마인드로 부동산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지리를 창출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

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제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후세에 터전을 만들어주는 특별하고도 자랑스러운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의미가 예전 개인의 영리를 위해 개발만 했던 업자의 개념과는 180도 달라졌다고 말하는 김 지회장은 지금의 부동산개발사업이란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주택의 공급은 물론 금융·상업·문화 등 나라나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다양한 경제활동공간을 공급하는 핵심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모든 전문가들이 한데 어울리는 협업과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자체와 학교, 공공기관의 연구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모델을 결정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김 지회장은 지회 내의 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해 중앙회와 함께 개발 현장에서 접하는 각종규제를 풀도록 요



청하고 정책개선에 대한 건의를 통해 부동산 산업이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 도시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지회장이 생각하는 글로벌 시대 경쟁력을 갖춘 완전한 도시의 모습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세계 각지의 문화예술인과 근로자들이 여행하며 살고 싶어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역동적인 도시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문가로서 기업인이 될 것을 강조해 온 김 지회장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영리사업 수준을 넘어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조정자로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은 스스로 능력과 자질을 키워 올바른 기업가정신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흥 출신인 김 지회장은 광주대 무역학과와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운대 경영대학원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조선대 경영대학원 건설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2009년 한국일보 주간 ‘고객감동 우수기업 그랑프리’ 수상을 시작으로 JT-BC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주간 ‘대한민국 경제리더’, 동아일보 ‘한국의 최고 경영인상 미래경영부문’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 주간 증시 포커스

## 美 FOMC회의 금리인상 결판 불확실성 제거로 단기 반등 기대

지난 주(7일~11일) 주식시장은 약세의 연속과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지난주 상품시장에서의 국제유가 급락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의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OPEC 총회에서 러시아 등 비OPEC 국가의 동참 없이 감산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으로 산유량 감산 합의에 실패하며 기존 하루 3000만배럴의 목표치를 유지하는 결정을 했다. 최근 18개월간 OPEC 산유량은 하루 평균 3150만 배럴을 웃돌고 있으며 최근 가입한 인도네시아 생산분은 불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공급과잉 우려가 점점 심화됐다. 국제유가는 이후 40달러선이 무너지며 12월 9일 기준 WTI 배럴당 37.16 달러, 두바이유 배럴당 36.21달러를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번 주(14일~18일) 증시의 초점은 15일~16일에 예정된 미국 FOMC 회의로 초점이 맞춰진다. 현재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미국 FF선물금리에 반영된 12월 금리인상 확률은 78%이며, 3월 FOMC 회의에서 두 번째 금리인상이 나올 확률은 43.6%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12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크게 전망하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하는 분위기다.

미국 산성생산전망은 전월대비 보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주택가격지표 또한 양호하게 발표될 것으로 판단된다. 12월 FOMC회의에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전망이다.

최근 달러인덱스는 12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100.21까지 상승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기존 달러에 배팅했던 투기적 자본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며 달러는 일정기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공급과잉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 등으로 하락폭이 심화했던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하락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달러 약세, 유가 및 원자재의 가격의 하방경직성 확보 및 변동성 완화, 정유, 철강, 건설 등 소재 및 산업재의 상승이 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라 일부 내수주의 리바운드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 FOMC회의 이전에는 관망심리가 팽배할 것으로 전망되나 금리인상 이후 달러약세 전개 및 유가 반등의 모습을 보일 때는 소재·산업재 중심의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연말 소비 약화 가능성과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확대 지속 부분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자웅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 은퇴후 필요 자금 월 226만원

### 실제 준비된 돈은 절반도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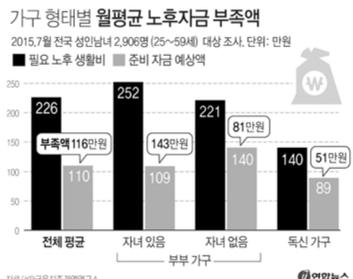
#### KB금융지주연구소 분석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현 가치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226만원이지만 실제 준비해 놓은 돈은 필요 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7월 25~59세 전국 성인남녀 2천 9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2015 한국 비은퇴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26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 저축액,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토대로 계산한 비은퇴가구의 평균 예상 준비자금은 월 110만원이었다. 은퇴 후 필요한 돈의 48%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독신가구는 월평균 필요자금(140만원)의 64%(89만원), 기혼



가구 형태별 월평균 노후자금 부족액. 2015.7월 전국 성인남녀 2,906명(25~59세) 대상 조사. 단위: 만원. 필요 노후 생활비, 준비 자금 예상액

부부들은 필요자금(249만원)의 45%(112만원)를 준비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는 준비자금 예상 비율이 필요자금(252만원)의 43%(109만원)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자녀가 없는 부부는 월평균 필요자금(221만원)의 63%(140만원)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 “포장김치가 좋아요”

#### 싱글족·맞벌이 부부 늘면서 상품 다양화 소비 20% 늘어

변거로운 김장보다는 포장김치 구입을 선호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김장 재료를 구입하고 직접 김치를 담기보다는 사 먹는 것이 편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 상품도 다양해 소비가 더욱 늘고 있다.

13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2일 현재까지 매출분석결과 절임배추 판매는 전년수준에 그쳤으나 포장김치는 20.4%, 소포장김치는 16.7% 신장으로 나타났다.

김장을 담그는 경우 해마다 배추 가격파동과 고추와 젓갈류 등 양념값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한다. 또 김장중후군이라는 말처럼 젊은 주부들이 담그기에는 배추 포기 다듬기, 절이기, 무치기, 보관하기 등 과정도 까다롭다. 반면, 포장김치의 경우 포기김치에서 목

은지까지 또한 배추김치 외에 열무김치, 파김치까지 김치종류별로 80g 소포장에서부터 7kg 대용량까지 용량별로 판매되고 있다. 개인의 기호 취향과 세대구성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캠핑 열풍 트렌드를 반영해 포장김치 캠핑세트, 소풍세트도 출시되기도 했다. 포장김치의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일반 김장비용이 4인기준 17만원이지만 포장김치는 최저1050원(80g)부터 3만9800원(7kg)에 구매할 수 있다.

김치 상품의 고급화도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는 국내산 배추, 무, 고춧가루에 천일염과 조선호텔 특제육수로 만든 조선호텔 포기 김치 2만4000원(3.7kg)을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싱글족과 맞벌이가 일상인 요즘에 포장김치가 저렴한 뿐만 아니라 시간절약과 간편함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 국세청, 캠페인 전개

국세청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캠페인을 한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당신이 궁금한 셀럽! 밀착토크 해드립니다!

# 밀착토크 동인-오현소 Show

MC 홍진영

매주 월요일 밤 11시

CHAN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